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33차	일자	2021.08.07. 18:30	장소	온라인
----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	○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	○	X	X	○	

## <개회>

##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회과학대학	학과(부) 집행부와 사회과학대학 자치단체 아고라 행사 진행 완료
약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예술대학	특이사항 없음.
의과대학	불참
인문대학	공간문제 인식 재고 활동 진행 중. 과 학생회와 학생자치 수다회 기획 중 대동제 홍보 진행 예정.
자연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통일공대	경경대와 공동콘텐츠 토요일 진행 예정. 불법카메라 탐지조사 완료.
동아리연합회	불참

## 2 보고안건

### 1. 총학생회장단 보고

### 2. 중앙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중앙집행위원회
1학기 학사 만족도 및 등록금 환불 만족도 설문조사
교육자치) 2학기 교양과목 강의계획서 바로잡기 진행 완료
연대사업) 비건 레시피 공모전 진행 완료
일상복지) 불법카메라 탐지 전문가 초청 강연 진행 완료
일상복지) 불법카메라 탐지 진행 중

산하위원회
출준위) 취업 사진 외부 업체 제휴 준비 중

### 3 논의안건

#### 1. 중앙감사위원장 재선발 논의

- 선발방식 결정 (기존 지원자 중 재선발 / 신규모집)
- 시기 확정

부총: 일전에 카카오톡으로 전해드린 것처럼 현임 중감위원장께서 가족사로 인해서 사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중감위원장과 논의한 내용은 카톡방에도 올려놨었고, 요약을 드리면 일단 최대한 빠르게 중감위원장을 재선발해서 단위별 위원 선발이나 기타 업무를 모두 이관하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논의안건으로 가져왔고, 먼저 저희가 일전에 면접을 진행했기 때문에 면접 지원자 중에서 다시 선발할지, 아니면 신규로 선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의견 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일단 질의 드릴 것이 있다. 혹시 기존 면접 지원자 중에 재선발하는 것이 회칙 상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다. 그것이 불가하다면 인문대학은 일단 회칙에 따라서 어찌 되었든 위원장 선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위원장이 사퇴한 거니까 회칙에 따라서 새로운 모집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인문대학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부총: 제가 미처 회칙을 확인하진 못했는데, 아마 회칙 상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적혀있을 것 같다. 해석의 범위가 넓어서 아무래도 중운위 논의 결과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경경.부: 경경대 말씀드리겠다. 저희도 회칙에 따라 결정하는 바는 인문대 측과 입장이 같고, 만약 회칙에 따라서 이전 지원자 중에 재선발하는 게 문제가 없다면 기존 지원자의 재지원 의사를 확인한 후에 포함하여 신규모집을 하는 것으로 의견 내겠다.

부총: 그러면 지원자였던 분들의 의사를 다시 물은 후에 포함시키고 신규모집을 진행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이신지?

경경.부: 네, 맞다.

간호.정: 동일 사퇴 건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규 선발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존 지원자가 재지원 의사가 있다면 신규 선발 공개모집 때 또다시 지원할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번과 똑같이 신규 선발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 저번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간호대학과 동일한 의견이다. 기존에 지원했던 분은 신규 선발이 이루어지면 알아서 본인이 판단하셔서 다시 재지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까지 물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다. 인문대학도 일단은 공개모집을, 회칙에 따라서 제20조에 보면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따라서 새롭게 모집해야 한다는 게 인문대학의 입장이다.

부총: 세 단위 의견을 종합했을 때는 회칙에 가장 가까운 방법은 신규로 모집하는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저도 일부 동의한다. 혹시 이에 대해서 신규 선발이 아니라 지원자 중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따로 없으신 것 같다. 그럼 신규 선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신규 선발 시기와 방식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시기는 후에 논의를 하고 지금은 일단 중감위원장이 공석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선발하는 모집 게시물이거나 실무 같은 경우는 현임 위원장께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게 회칙 상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는 저도 아직 판단을 못 해서 관련해서 의견 주시길 바란다.

간호.정: 지금 중감위원장분이 임기 중간이시기 때문에 위원 선발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사퇴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게 안으로 상정된 것인지?

부총: 네. 8월까지만 업무를 하실 수 있다 하시고 새 위원장 선임을 요청하셨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 중감위원장까지 공석일 경우에는 중운위와 총학에서 모집 공고나 실무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중감위원장이 계시니까 실무는 중감위에서 맡고 저희는 면접 이후 절차부터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 의견을 드린다. 동일 의견이나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밝혀주시길 바란다.

예술.정: 예술대학은 동의한다.

경경.부: 경경대도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도 동의한다.

부총: 동의하지 않는 단위도 있는지?

약학.정: 혹시 면접 이후의 절차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부총: 다른 건 없고 중감위 측에서 공고를 해서 지원하신 분들의 명단이 나오면 저희가 계속 그렇게 진행해왔던 것처럼 면접 진행하고, 선발하는 절차까지만 맡는 걸 의미한다. 그럼 정리를 하면, 신규로 선발하도록 하고 모집에 관한 실무는 현행 중감위원장님이 맡아주시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다면 시기 정하는 논의로 넘어가겠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생각이 필요한데,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을 보면 제20조 9에 '위원장 유보 및 사퇴 시 잔여 임기가 100일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에 제20조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는 날짜와 기간은 필요에 맞게 중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과 지금 위원장 선발이 잘 상충이 안돼서 인문대학은 사실 아까 부총학생회장님의 의견에도 답변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혹시 이 회칙과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 위원장이 사퇴는 아닌데, 위원장이 업무를 진행하긴 하는데 본인의 사퇴를 확정지어 놓고 새로운 위원장을 모집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인문대학의 생각은 위원장님께서 깔끔하게 사퇴하시고 지난번처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더 회칙을 준용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더 바람직한 방향성이 아닐까 라는 말씀을 드린다.

간호.정: 중감위원 모집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자가 위원장을 보고 지원하는 것도 있다 라고 생각한다. 일을 같이 해야하는 위원회의 구성이라면 인문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퇴와 함께 위원장 재선발 이후에 위원을 모집하는 것이, 그 위원장분께서 모집을 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생각이 든다. 혹시 지금 사퇴를 하려고 하시는 위원장님께서서는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봐도 될지?

부총: 일단 8월 안에는 임기를 마치셔야 한다고만 말씀해주셨고 시기는 따로 중요하지 않으신 것 같다.

간호.정: 8월까지 무조건 임기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이 아니시라면 중감위원장 모집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그 중감위원장 분께서 위원 모집에 대한 실무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부총: 몇 단위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방안을 수정해서 100일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기 전에 선임 위원장께서 사퇴를 하시도록 하고 그 후에 중감위원장이 공석이었을 때와 동일하게 위원장 선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다. 결정이 된 것 같다. 일단 중감위원장께 먼저 상황 설명을 하고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번에 있는 시기 확정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주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 괜찮으실지? 괜찮으신 것 같다. 넘어가겠다.

## 2. 등록금 환불 및 학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검토

- 설문결과 검토
- 방향성 수립
- 이후 활동계획 논의

부총: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단 결과지를 카톡으로 드렸는데 53분까지 검토하고 다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다들 읽어 보신 것 같다. 이게 저도 정리가 늦었고 내용이 길어서 빠르게 전부 확인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회의 끝나고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일단 대략적으로 파악하신 맥락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일단 저희가 크게 학사 만족도와 등록금 환불에 대한 의견 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할 때 학사 만족도와 등록금 환불을 별개의 주제로 가지고 각각 맞는 주무부서에 개선 요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학사 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등록금 환불의 근거로만 사용해서 등록금 환불 요구라는 하나의 타이틀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둘 중 어느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

인문.정: 일단 인문대학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두 개 다 저희가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2학기 학사도 전반기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사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을 학교 측에 요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사 만족도 조사의 내용 결과가 저희는 등록금 환불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 2개를 분리해서 갈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게 인문대의 생각이다.

부총: 두 갈래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 경우에는 교학부처 관련해서 학사 만족도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종합적인 결과를 가지고 등록금 환불 요구를 진행하게 될 것 같다.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란다. 네 그러면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하고, 저희가 결과를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저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학사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는 강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강의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는게 설문조사로 저는 파악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등록금 환불을 학부분들이 요구하는 근거는 대개는 학교를 대면과 비대면의 물리적인 차이를 주장하시는 것 같고 학교의 시설이나 인적 자원이나 아니면 대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학습적 혹은 생활적 이점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인프라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저는 보인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등록금 환불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의 물리적 차이를 주장하면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의견과 함께 저희가 지금껏 진행해온 등록금 환불이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것은 학우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못지않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사실 저번 학기보다 이번 학기에 더 협상이 힘들어질 것 같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저번 2020년도 2학기 등록금 환불을 진행했을 때는 총학이나 중운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학생지원팀이나 다른 부서들이 일부 주장을 보완해주거나 아니면 협의를 지원해줬던 것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본부에서 이전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거나 결과가 더 불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때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서 선회를 해서 정보공개나 학교본부의 입장을 공유하라는 측면으로 요구 방향을 바뀌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개인적으로 의견 드린 것이고 다른 단위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 분석하신 바가 있으면 공유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말씀드리면, 인문대학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크게 이 설문 조사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진 못했지만, 일단 인문대학 차원에서 이야기되었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교학부처에 강의 재사용 문제와 관련되어서 60% 학우분들께서 이거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투표를 해주신 것으로 저희가 설문 조사 결과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의 측면, 시험 일정이라든지 강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전달이 안 되어서 문제를 느끼시는 학우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설문 조사 결과에서 파악을 했다. 그래서 교학부처에 강의 재사용 문제와 시험 일정, 그리고 정보 전달 부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짜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킬 때 학교 측에서 제재할 수 있는 용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일단 인문대학은 파악을 했다. 그 다음에 등록금 환불같은 경우는 저희도 부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학우분들께서 그 이유를 주관식으로 해주셨을 때 결국 비대면 강의는 대면 강의가 될 수 없고 두 개는 엄연히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다. 이것을 가장 1차적인 근거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아까 말했던 강의 재사용 문제나 정보전달 부족 문제에 있어서 학교 본부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측면을 언급해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설 이용까지 해서 총 세 가지 근거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부총학생회장의 고민 지점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래도 일단 98%의 학우분들께서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중운위 차원에서는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그 대신 등록금 환불 요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왜 등록금 환불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지를 학교 본부가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일단 인문대학에서 정리한 어느 정도의 저희가 생각하는 중운위의 방향성은 이 정도이다.

부총: 감사하다. 말씀 중에 덧붙이자면, 일단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온라인 강의 관점에서 강의에 대한 만족도

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대면 강의가 대면 강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시각이 가장 큰 것 같다. 그리고 협의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일단 실제적으로 어쨌든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요구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는데 제가 설문조사를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학교가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왜 줄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이게 등록금 환불 요구로 다시 이어지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요구에는 상호 간에 왜 우리가 학교에서 등록금 환불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학교의 재정 상황을 상호 간에 공유하자는 쪽으로 요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간호.정: 그 부분이 2020년 2학기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서도 결론적으로 중운위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요구하는 바는 2학기 분과 똑같은 것 같은데 학교본부에서 어떻게 설명을 더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 아까 인문대측에서 얘기 해주신 것처럼 설문 조사 결과가 학생회가 내야 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비대면 학사가 대면 강의랑 실기, 실습에 비해서 절대적 한계가 느껴진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실기 실습에서 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라는 비율 또한 높기 때문에 요구하는 바는 2020년 2학기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다만 2학기 때도 중운위에서 학교 본부에 대해서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라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대표자들한테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던가 대표자들에게만 얘기하지 말고 전체 대상으로 학교가 설명하라는데 그 부분이 똑같이 2021년 1학기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면 결국 문제는 똑같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운위에서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 오늘 얘기하면 될 것 같다. 결과지를 이렇게만 봐도 충분히 학우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벌써 나와 있다 라고 생각이 든다.

부총: 네 좋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받고 아니면 넘어가겠다.

약학.부: 저는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말한 것에 대한 중간점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다. 어차피 학교에 아무리 요구해봤자 재원이 없으면 환불을 많이 못 받는 건 동일할 건데 이제 학생들은 이걸 해라니까 저희는 환불을 요구하고 대신에 학교에는 적게라도 해주면,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만큼 적은지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 타당하게 너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있다. 이렇게 요구가 계속해서 많은 것을 보면 아무래도 설명을 많이 못 받은 측면이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말하신 거에 가운데를 좀 찾아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다.

간호.정: 그 절차가 저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 후에 만약에 본부 입장에서 2021년 1학기분에 대해서 등록금 환불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을 때 왜인지를 설명해달라, 전체 대상으로 설명을 해 달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약학.부: 저는 그런데 할 수 없다여도 만약에 해줘도 금액이 적으면 학생 분들은 만족을 안 하실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왜 이만큼 해주는지, 아니면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학교의 설명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생각한다. 환불이 돼도 제일 적은 금액이면 만족을 안 하실 확률이 높다. 사실 제일 처음에 환불된 것도 지금까지 환불된 금액 중에서 제일 많은 금액인데 그 금액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학우분들께서 존재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설명을 해야 된다 무조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간호.정: 약대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금액이 적어도 설명이 필요하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하다. 어떤 방향이든 간에 학교 본부의 입장을 학교 본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라 동일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인문.정: 인문대학 지금 어느 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야할지 잘 정리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어쨌든 간에 설문 조사를 두 가지를 다 했다. 학사 만족도도 하고 그 다음에 등록금 환불도 진행했으니 저희가 가져가야 할 논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든다. 첫 번째는 일단 학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학기 학사를 대비해서 학교 본부에 요구해야 할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학교본부에 요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논의 지점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등록금 환불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가져야 할 것 같다. 어쨌든 간에 98%의 학우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간호대 회장님과 약대 부학생회장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학우분들께서는 등

등록금 환불이 있어도 학교 본부가 이 과정을 직접 설명하지 않아서 여러 의문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등록금 환불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환불 과정에서 전 과정을 학교 본부가 어떻게 직접 학우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다.

부총: 대신 정리해주셔서 감사하다. 일단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록이 나온 것 같다. 등록금 환불 관련에 대해서 마저 정리를 한 후에 저희가 학사 관련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추릴지 논의를 해보겠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이번에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는 일단 강의 운영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학사에 절대적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해서 아직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과 낮은 등록금 효능감은 여전하기 때문에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등록금 환불을 학생 대표자들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전에 금액적인 결과에 치중하느라 지금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있는 재정 정보에 관한 설명이나 등록금 환불에 대한 학교의 설명에 대한 요구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 이번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는 학교 본부가 상황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것을 초기에 요구를 하고 요구의 큰 축으로 가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일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본부에 요구를 전달하고 본부가 밝히는 입장에 따라서 신속하게 등록금 환불의 일부라도 가능한 경우에는 협의를 계속 지속하고 등록금 환불이 불가하다고 상호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금 왜 환불이 어려운지 재정 상황에 대해서 학교가 명확히 설명하라는 것으로 요구를 돌려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정리한 의견이 맞는지 그리고 또 추가로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란다.

간호.정: 그럼 학사 요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인지?

부총: 아니요. 등록금 환불 요구 관련해서 추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간호.정: 네.

부총: 당장 의견이 없으시다면 제가 수요일까지 설문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정리해서 등록금 환불 요구안을 작성해보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카카오톡으로 피드백을 받고 필요하다면 임시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학사 요구사항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내로 요구 사항을 정립을 한 후에 일단 주무부처에 요구를 전달하는 것까지는 금주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이제 학사관련 요구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말을 좀 이으면 아까 인문대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강의 재사용 문제랑 수업 내 공지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가장 많은 불만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방지 및 개선책을 요구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다. 나머지 분야같은 경우는 아주 불만족스럽다라고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참고해야 할 점은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실험, 실습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낮았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실험, 실습 수업의 개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요구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이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두 가지 요구 모두 일단 안을 작성한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간호.정: 안이라는 게 어떤 안을 말씀하시는지?

부총: 제가 아까 수요일까지 설문 조사 결과와 오늘 논의를 토대로 요구안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 의견 드리자면, 저희는 인문대학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다 동의를 하긴 한다.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관련해서 등록금 환불 및 학사 만족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21년도 2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한차례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과 설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조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될 사항이나 가이드라인 내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실 강의 재사용 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 강의 재사용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우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만족을 하시는지 한차례 더 조사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수강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 혹은 같은 퀄리티의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 결과에 있어서 달라진 내용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강의를 다

시 찍으셔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전년도 강의를 수강한 학생과 그 다음연도 학기를 수강한 학생의 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의 재사용이 학우분들이 왜 불만족 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 드린다.

부총: 그러면 강의 재사용 관련한 별도의 설문이나 조사를 한 번 더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지금 수합한 설문조사 결과 내에서 분석을 하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신규로 조사를 한 번 더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부: 사실 솔직한 생각으로는 각 교수님들께 이런 강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긴급 조사라도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정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1차적으로는 강의 재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고 뭔가 학교 측에서 관련해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냐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그 때 다시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

부총: 네 알겠다.

사범.정: 사과대 부학생회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추가로 실험, 실습 과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한다. 또 2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 사용료가 등록금에 포함되는 단위가 있다. 그런데 등록금은 동결이 되었고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시설 사용을 못 하는데 시설 사용료가 포함된 등록금이 동결된 거에 불만이 학우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시설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가 보았을 때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지금 아직까지는 학우분들이 시설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도 포함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 또 의견이 있으신지? 더 없으신 것 같은데 안건 마치기 전에 사실 많은 내용을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대행 말하는 동안에는 임시회의를 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었는데 혹시 이번 주중에 임시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은지? 안을 제가 만들면 같이 보고 논의를 하면서 그 요구를 확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인문.정: 인문대학 가능하고 임시회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정: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진행하는 게 맞고 참석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

부총: 네. 제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일정투표를 올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일단 서울캠퍼스에서는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어느 정도 논의를 킵오프한 상황인데 두 사안 모두 안성캠을 끼지 않으면 학교 본부와 논의가 불가능한 바라 제가 이번 주 중에 안성캠퍼스 학생회에 결과를 공유하고 안성측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전달을 드리겠다. 안성캠퍼스와 논의한 결과는 중운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네 넘어가겠다.

### 3. 신입생 예산 활용 방안 논의

- 방안 확정
- 총학생회 집행부 의견 공유
- 주무부서 문의결과 공유

부총: 이게 가장 큰 논의일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카카오톡 방에 주무부서 문의 결과를 올려 드렸다. 지금 좀 채팅으로 한 번 더 공유해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이미 올려드린지 꽤 됐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논의가 좀 새로워진 점은 원래 인당 단가를 통일해서 진행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논의를 진행을 했다. 그리고 오늘 주무부서에 문의를 했을 때는 일단 그게 권고사항이고 요청사항은 맞으나 꼭 통일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통일을 요구했던 것은 이제 신입생별로 혜택이 다를 경우에는 신입생간의 차별이나 차이, 또 그게 부정적인 여론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으나 이게 학생회에서 그리고 또 단위별로 잘 정당하게, 정당성있게 예산을 사용하고 여론이 통제가 된다면 통제라는 단어는 옳지 않은 것 같다. 그 학생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면 단위별로 단가를 통일하지 않아도 예산 지급은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했다. 그리고 지난 회의에서 가장 많았던 요구가 동결에 관한 요구인데 말씀드리기 전에 물어보셨던 20학번 예산 같은 경우는 전액을 지금 보존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내년까지 두 예산을 모두 동결하게 되면 20학번 예산은 두 차례 동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존이 어렵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내년에 두 예산을 모두 넘기면



20학번 예산은 일부 감축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간호.정: 간호대 의견 드러도 되는지? 20학번 예산에 대한 답변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올해 미집행시 동결 불가능 가능성이 크다 라도 말씀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예산도 21학번 예산과 함께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20학번 예산도 집행이 가능할 경우에 일단 20학번 예산 집행의 경우도 다른 단위에서 논의하고 통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타 단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후에 각 단위별로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20학번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54분 33초 부근) 권고로 이월이 어려울 수 있다면 20학번 예산 집행이 우선시 되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부총: 네 일단 20학번 예산을 원 금액 그대로 올해 21학번 예산이랑 함께 집행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물어보겠다.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별로 논의하실 부분이 조금 더 남아있어서 다음 회의에도 논의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야기를 해볼 거는 일단 단위별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제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전제가 개별집행과 집행을 할 수 있는 단위, 없는 단위가 나뉘는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이제 그 전제가 사라졌으므로 이제 몇 가지 문의를 더 거친 다음에 이제 단위별로 알아서 결정할지 아니면 중앙논의를 계속 할지에 대해서 오늘 정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전에 일부 개별단위가 집행하고 일부 중앙단위가 집행하는데에 대해서 집행부랑 논의해본 결과는 일단 집행부에서 단위의 수나 아니면 사업의 규모가 어떻게 되든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고 총학생회 차원에서 일부 단위에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난처하다는 이유로 일부 개별, 일부 중앙단위 집행에 대해서는 총학생회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전해드리겠다. 제가 방금 개별단위로 이관할지 중앙논의를 계속할지 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0학번 예산과 관련해서 문의와 논의를 좀 더 거친 후에 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도 든다. 그래서 일단은 논의의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졌으니까 이번 주는 이렇게 상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 결정은 다음 주에 진행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단위별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사범.정: 사범대 질의사항 있는데 20학번 예산도 함께 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수요일에 단운위가 있어서...

부총: 내일 가능하다.

사범.정: 네 그러면 답을 주시면 저희가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인문.정: 저희도 동일한 의견이었고 20학번 예산 사용 여부 최대한 빠르게 알려주시면 단운위 차원에서 다음 주 회의에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산 사용에 있어서 아예 안쓰는 것과 쓰는 것 이 차이도 가능한건지도 여쭙 봐주셨으면 한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조금 쓰는 것과 많이 쓰는 것 차이를 걱정하는...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건지 0원 대 얼마 이렇게도 가능한지 여쭙봤으면 좋겠다.

부총: 일단 좀더 확실하게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내일. 제가 파악할 때는 단위별로 단가를 통일해야 한다는 전제가 사라진 이상 집행, 미집행의 경우도 주무부서 차원에서는 그 단위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여론도 그 단위에서 알아서 책임지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한 번 더 여쭙보도록 하겠다. 문의사항 있으신지?

약학.정: 혹시 약학대학 질의 있는데 20학번이랑 21학번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20학번 예산만 사용하고 21학번 예산은 동결을 할 수 있는지 별도로 나눠서 적용시킬 수 있는지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총: 물어보도록 하겠다. 아직 이런 방향으로 물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문의를 해보겠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혀 드리면 이 예산은 ot 혹은 비슷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예산으로 지금 목적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20학번 예산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예산사용의 목적성은 20학번을 대상으로 20학번이 하지 못했던 신입생 ot와 비슷한 형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다. 여튼 문의 주신 건 여쭙보도록 하겠다.

자연.비: 자연대 질문 있다. 그러면 각 단과대 내에서 지금 어떻게 사용하던 괜찮다든지 조금 더 자율성이 부여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걸 좀 더 과 단위로 집행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부총: 그건 불가능할 것 같다. 지급은 단과대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과 단위는 아예 별도의 창구로 예산 지급이나 사용이 이뤄지는걸로 알고 있다.

자연.비: 네 감사하다.

통공.정: 공대 학생회장 의견 있다. 제가 답변 이해하기로는 모든 과에서 통일시키지 않아도 되고 그 여론을 어떤 단어를 써야될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없다면 특정 단위는 집행하지 않고 특정 단위는 집행해도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는데 그게 맞는지?

부총: 일단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까지는 문의를 해봐야 한다. 다만 얼마를 쓸지, 어떻게 쓸지는 자율성이 열려 있다는 내용인 것 같다. 추가적으로 답변 드려야할게 있는지?

통공.정: 다음 주까지 어떤 논의를 이제 완결 짓고 오시길 바라시는 건지? 너무 많은 얘기가 오갔다.

부총: 일단 지금 주신 문의사항들을 제가 내일 답변을 먼저 받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카톡으로 어떤 논의를 해오실지 알려드리겠다. 근데 아마 20학번 예산에 대한 사용 계획을 논의해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하다.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하겠다. 어쨌든 상황설명은 다 드렸고 문의사항은 더 있으면 더 수합해서 제가 내일 문의를 하고 오후3시 전까지는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관련해서 뭘 논의해야할지도 카톡으로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정리하겠다. 안건 넘겨도 되는지? 네.

#### 4. 장학제도 개정 관련 논의

##### - 6% 재구성 논의

##### - 단위별 논의결과 및 의견 공유

부총: 주무부서 문의 결과는 좀 채팅에 다시 한 번 공유해 드리겠다. 좀 잘렸는데 채팅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설명 드리면 6%인 약30억 중에 주무부서에서는 장학제도 개정의 최초 목적성에 따라서 5분위까지 소득 장학을 확충하기를 원하고 나머지에 대한 주무부서의 의견은 따로 없다. 학생대표자 논의를 기다리고 있고 5분위까지 확충하는데 약 18억 정도 쓰이는 것으로 계산을 전달해줬고 그러면 잉여금액이 12억, 10%를 저희가 전체로 봤을 때 2.4% 정도 되는 돈이다. 밑에 신규 장학제도를 구성할 경우나 아니면 정상적 기준을 반영하는 장학제도를 만들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자 개인이 이런 논의 방식도 있다라고 의견을 준 것이고 주무부서의 의견으로 준 것은 아니다. 그리고 5분위까지 소득 장학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5분위까지 확대하겠다고 확정을 지어놓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문의를 해봤을 때는 제가 별도로 5분위에 전액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6~7분위에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그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5,6,7분위 까지라면 검토는 해볼 수 있다 라고 답변을 주셨다. 이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집행부에서도 방안을 생각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단위별로 논의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다. 호명을 하는 게 좋겠다. 간호대 논의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간호.정: 다른 단위 먼저 해도 괜찮은지?

부총: 경경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경경.부: 경경대에서는 우선 성적장학금 비율이 줄어든 만큼 가용 금액을 활용해서 장학금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설문조사 결과 신설 항목에서 성적부분을 결합한 성적+비교과, 성적+가계 두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가계 항목은 이미 소득 장학 확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도 있고 비교과 항목은 사실 수치화해서 수혜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현시국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전과 비교해서 비교과 활동을 진행하기에도 다소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성적 + 비교과로 진행 하는데에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총: 네 감사하다. 잠시만요. 죄송하다 다음 사범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사범.정: 사범대 일단 말씀 드리겠다. 사범대도 의견 공유를 했는데 일단 소득분위 장학 확대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근데 복지 장학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다. 근데 논의 결과로는 복지장학금이 만약에 신설이 된다면 성적장학금과는 명확한 구분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리고 성적장학금이

축소가 되었는데 성적 장학금이 축소된 만큼 다른 장학금을 신설을 해서 그런 성적 장학금 축소된 데에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에 대한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총: 다음 사과대 의견 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앞선 사범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의견과 거의 동일한데 사실 성적장학 비율을 줄이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뭔가 그런 새로운 신설 장학제도를 구성해서 더 많은 학우분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부총: 네 약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약학.정: 저희도 좀 뒷쪽에 말씀드리겠다.

부총: 예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예술대학 이번 주에 미처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부총: 인문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질의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처음에 장학제도 개정과 관련된 어떤 학교의 pt자료를 봤을때 그 소득분위 장학을 60~70~80%로 지급을 하고 남은 20~40%의 비율로 신규 장학제도를 개설하던가 기존의 장학제도를 확충하는 방향성이 맞았는지?

부총: 그랬던걸로 기억한다.

인문.정: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두가지로 일단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소득분위 장학에 관련되서는 6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저희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성적장학금이 축소 되었지만 그래도 성적장학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장학제도 남은 비율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소득분위 장학도 70~80%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60%까지로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으로 신규 장학제도를 개설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이 신규 장학제도는 성적과 비교과를 합친 장학제도가 개설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부총: 네 감사하다. 다음 자과대 논의하신 결과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자연.비: 자과대도 앞의 의견과 비슷한데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어쨌든 성적 장학금이 축소된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장학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장학제도는 소득분위가 포함되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였다.

부총: 공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공대는 우선 성적 장학 축소부터 반대를 했던 입장으로써 딱히 이번 장학 논의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고 다들 논의할 의지가 없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또한 국가장학금을 판정할 때 내는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자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죠? 아무튼 국가장학금랑 성적 말고는 정확한 확실한 자료가 아닌 자료들로 판단을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들어서 공대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상이다.

부총: 네. 간호대에 다시 차례를 드려도 되는지?

간호.정: 일단 간호대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고 일전에 본교에서 복지장학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상세 내용은 기억이 안나지만 저번에 진행했던 장학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학우분들께서 제시하신 그 의견 따라 수합해서 전달하는 것이 맞다 정도로만 의견 내도록 하겠다.

부총: 네 약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약학.정: 저희도 논의가 제대로 된 건 아닌데 일단은 경경대랑 의견이 거의 비슷한데 새로운 장학지원 제도를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비교과 플러— 성적인데 비교과에서 조금 제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추가해서 꼭 소득제도가 최대한 반영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소득제도와 최대한 별개로 장학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부총: 네 감사하다. 어느 정도 모아진 것 같은데 일단 소득분위는 최소한으로 하는 걸로 하고 기존 성적장학금의 수혜에 맞게 성적과 기타 역량을 합산하는 신규 장학제도를 개설해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의견을 들었고 다음 회의에서도 논의는 계속 진행하고 일단 오늘 논의 결과 그러니까 성적 + 기타 역량을 평가하는 장학금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기존에 학교측에서 교과 외에 학생의 역량평가에 사용했던 자료나 기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총학생회 집행부에서도 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다음 주 회의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혹시 안건에 대해서 또 별도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란다.

간호.정: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본부에서 얘기한 부분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비교과에 있어서 학생이 증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면접을 본 이후에 지급하는 방향에 대해서 본부가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난다. 그래서 성적에 대해서 학우분들께서 대상이 줄었다거나 이제 필요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만약에 비교과 성적을 합쳐서 할 거라면 비교과의 수치화가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린다. 면접이라기보다 심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부총: 네 감사하다. 그러면 다음 회의 때는 오늘 정리된 대로 성적과 기타 역량을 반영하는 신규 장학제도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 4 기타안건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 저희가 잊어버린 게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재정정보 결의안을 본부에 전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칙개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관련해서 주무부서와 일정을 협의를 이번 주 중에 하고 결과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다. 학칙개정 관련한 경우는 일단 주무부서에서 내용을 다 확인을 했고 대부분의 내용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일부 논의만 한차례 정도 논의만 거치고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다. 역시 기타 안건에 상정하고 싶거나 질의가 있으신 분은 주시기 바란다.

약학.부: 장학제도에 관련해서 의문이 있는데 저희가 성적장학금을 축소시켰는데 인원이 단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인원은 동일한데 금액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둘 다 감소를 한 건지 혹시 어떤 방향으로 됐는지 혹시 알 수 있는지?

부총: 금액을 줄였다.

약학.부: 네 감사하다.

부총: 세부 퍼센트는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장학금을 그렇게 변경하게 되면 학칙을 개정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정된 날짜도 알고 계신지?

부총: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과.부: 네 감사하다.

간호.정: 재정정보 결의안 전달이 저번 총학생회장님 없으시기 전부터 전달할 예정이라고 들었던 내용으로 기억이 하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건지?

부총: 네. 설명을 드리면 본래 서면으로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을 학생지원팀에서 직접 전달을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줄테니 조금 기다려 달라 라고 해서 일단 회장단이 수공을 했고 관련해서는 학지 팀에 현황을 이번 주 중에 물어볼 생각이다.

간호.정: 그럼 결의안 전달이 아니라 학지팀에 문의를 하고 난 후에 답변을 공유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부총: 네.

간호.정: 결의안에 전달이 중운위에서는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행방에 대해서 궁금하긴 했으나 언제부터 나왔던 것인지? 총학생회장님 계실 때 부터 서면 직접전달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온 건지?

부총: 일단은 제가 중운위에 회장단이 보고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일단 지금 8월 인데 아마 저번 달에 이런 논의가 오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다. 처음 들으시는 얘기라면 저희가 말씀을 좀 현황공유를 늦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중에 파악해서 가져오도록 하겠다.

간호.정: 현황에 대해서 처음 들어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그 자리라는 게 어떤 자리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자리 마련을 해주겠다는 말 때문에 결의안 전달이 지금 너무 많이 늦어져버린 것 같아서 빠르게 공유를 해주시는게 지금 상태에서는 시급한 것 같아서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총: 네 알겠다. 저희가 시급히 현황을 알아오고 전달 방식보다 시기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해보도록 하겠다.

간호.정: 그리고 학지팀에 답변이 계속 늦어진다면 그냥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라 생각해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부총: 네 알겠다. 기타 의견이나 안건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정도로 하도록 하겠다. 다들 고생하셨다.

## <폐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